번 싸워보지도 않고 개성 쪽으로 달아나자 부원수 신각申恪은 도원수를 따라가지 않고 도성으로 들어갔으나 서울수비를 맡고 있던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李陽元과 함께 역시 한번 싸워보지도 않은 채 양주楊州로 물러나자 왜군은 그달 2일에 한강을 건너 3일에 흥인興仁·숭례崇禮 두 대문을 통하여 도성으로 진입했다. 선조는 2일 개성에서 명나라에 진주사陳奏使로 다녀온 한응인韓應寅을 제도순변사諸道巡邊使로 삼아 임진강을 방어토록 했다. 임금은 3일 저녁에 왜군이 도성을 점령했다는 급보를 받고 바로 평양으로 떠나 7일에 도착했다. 8일에는 이순신의 적진포해전赤珍浦海戰이 있었는데 적선敵船 11척을 파괴하여 불사르고 적군의 선적물자船積物資를 많이 노획했다. 5월 중순에는 도성수비를 맡고 있다가 양주 쪽으로 퇴각한 유도대장 이양원과 한강방어의 임무를 맡았다가 도원수 김명원이 임진강 쪽으로 도망가자 도성으로 들어가 이양원과 같이 양주로 간 부원수 신각이 함께 도성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식량을 약탈하고자 양주 쪽으로 나온 적의 일부병력을 해유령蟹踰嶺(경기도 양주군 陽州郡 백석면白石面 연곡리蓮谷里)에서 매복埋伏으로 기습하여 70여 명을 죽이는 전과戰果를 올렸다. 이 싸움에서 부원수 신각과 남병사南兵使(함경남도 병마절도사를 지칭) 이혼李渾이 특히 잘 싸워 많은 적병을 죽일 수 있었다. 이는 적이 부산에 상륙한 이래 추풍역秋風驛 전투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린 큰 전과였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강방어 임무를 맡았다가 먼저 도주한 도원수 김명원이 그 책임을 부원수 신각에게 지워 모함함에 따라 신각은 해유령의 싸움에서 전공을 세운 직후 조정의 명령으로 처형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처형을 지시한 후 바로 조정에 해유령 전투의 전과가 보고되자 서둘러 취소하는 파발을 보냈으나 이미 신각은 형장刑場의 이슬로 사라진 뒤였던 것이다. 이는 그해 5월 중순의 일이었다.

• 토적土賊과 왜적倭賊의 연합도적떼 토벌전투

왜적은 물밀듯이 상륙하고 거침없이 진격을 계속하니 민관군은 모두 항전을 못하고 많은 백성이 나라가 곧 없어질 것으로 여기게 된다. 나라 전체의 기강은 무너지고 항전태세抗戰態勢가 갖추어질 수 없는 틈을 타 여러 가지 불만을 지니고 있던 세력은 보복과 약탈에 눈을 돌린다. 당시 영천군과 신녕현에서도 영천군의 관노官奴(관청에서 일을 돕는 신분의 남자) 희손希孫이 2백이 넘는 불만세력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영천성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과 내통하여 함께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신녕현에도 들어와 보복·약탈·방화·살인 등 분탕을 일삼게 된다. 이들은 '이제 이 나라는 끝장이니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트리면서 왜적의 앞잡이가 되어 낮에는 적과 내통하고 밤에는 민가에 들어가 노략질을 행하는 등, 이적행위利敵行爲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의병활동도 방해하고자 백성과 이간離間하고 모해謀害하는 언동을 서슴없이 일삼게 된다. 이에 겁을 먹은 신녕현감新寧縣監 한척韓倜도 모든 공문서와 직인職印마저 이들에게 빼앗기고 깊은 산으로 숨어들어 행방을 감춘다. 토적과 왜적의 연합 도적 떼가 기세를 떨치자 여러 관속官屬과 백성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총소리에 놀란 산짐승 같이 산으로, 산으로만 숨어들었다. 현청縣廳에는 백성을 돌볼 관원官員이 없고 거리나 들판에는 백성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니 온 현縣이 허허벌판인 듯했다.

이 도적 떼는 의병이 왜적과 싸우는데 큰 방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민심을 극도로 교란시키는 존재로 변해갔다. 이때 권응수 의병장은 생각 끝에 왜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난을 당하여 나라를 팔고 민족을 욕되게 하는 역도逆徒를 먼저 무찔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없고 왜적과의 싸움을 계속할 수도 없는 형세였다.

이런 가운데 의병이 왜적을 격퇴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세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스스로 위협을 느낀 역도는 위장으로 의병활동을 저지하고 방해하려 했다. 그러면서 거짓 의병지휘자를 모해할 계획까지 세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기도 했다. 그해 5월 중순 이들 토적을 잡을 작전을 구상하고 있을 무렵인 17일 낮에 그들이 왜적과 한 무리가 되어 의병부대를 선제 공격해 왔다. 이에 의병군은 빠른 역습을 펼쳐 토적의 괴수魁首 희손을 비롯한 세 사람을 사로잡아 참살斬殺하자 나머지 도적은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고 합세한 왜적을 쫓아 18일에 5명의 목을 베고 27일에는 10여 명과 그들에 합세하던 토적 20여 명을 죽이자 이로부터 경상좌도에서는 다시 토적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서 신녕현의 민생은 점점 어려워져갔다. 산속으로 숨어들어간 현감을 비롯한 관속의 행방은 계속 오리무중인데다 백성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무슨 조치가 없이는 아니될 형편이었다. 권응수 의병장은 병사들로 하여금 낮에는 산속에 숨었다가 밤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백성을 일일이 방문토록 하여 현감을 비롯한 관리들이 하루 빨리 현청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군령軍令을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알리게 하고 거리마다 방榜을 붙이게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전衙前 등 관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현감은 하루 빨리 복귀하고 없어진 관인官印과 잃어버린 공문서를 찾아오면 나라에서 지방 관리에게 빌려주는 부조미扶助米를 갚지 않아도 되고 만약 찾아오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하면서 포상과 징벌의 방침을 선언하였다. 현감 한척과 대부분의 아전이 돌아오고 관인과 공문서도 회수되었다. 돌아온 아전들로 하여금 공무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고 백성도 돌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곡식을 모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등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돌아온 현감 한척은 산속에 숨어 여러날 굶주린 탓이라 모습도 초췌하고 기력도 쇠약해 있었다. 그는 권응수 의병장과 대면하자 눈물을 쏟으며 '나는 절박하여 곧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公을 만났으니, 공을 내 목숨처럼 여깁니다'하였다. 권응수 의병장은 그를 위로하고 권면勸勉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무를 수행하고 민생안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 경상감사의 지시에 따라 경주의 집경전集慶殿에 모셔져 있던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수용晬容(임금의 얼굴을 그린 화상)을 피난시키고자 경주 방면으로 가느라 영천성을 비웠던 김윤국金潤國 군수가 권응수 의병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진영에 합류했다. 그 소식을 들은 일부의 관군官軍(권응수 장군 실기에서는 북군北軍으로 지칭)도 합류해 왔다. 그에 연이어 권응수 의병군의 첫 전투에서의 승전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킨 영천 사람 정대임鄭大任·정담鄭湛·조성曺珹, 하양河陽의 신해申海 등도 의병 진영에 합류하게 된다. 특히 정대임은 지용智勇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고향 사람들을 모아 산중에 진을 치고 있다가 1백여 의병을 이끌고 와 '나라를 위하여 같이 죽겠다'고 맹세하니 의병의 사기가 더욱 떨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권응수 의병군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다.

능동칼럼

글자로만 남을 四始

權 在 琮
편집위원

우리 시조께서 삼중대광아부공신三重大匡亞父功臣의 작위에 수성권受姓權하신 이래 1천여년을 이어오면서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숫자에 더하여 그 행동거지行動擧止에서 나아감과 물러남이 타성인의 그것에 표表가 됨이 적지 않으니 그로 인해 사람이 만나 수인사를 하면 '아, 안동권씨 양반이시군요'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우가 주어지면서 이쪽의 행동거지와 말씨를 살핀다. 그렇게 되면 다소 언짢거나 일에서도 양보를 하고 돌아설 때가 있다. 막상 손해를 보았다고 후회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곱씹어보면 그러길 잘했구나. 내속에서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기도 하고 미덕을 행한 일에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놀라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편린이 쌓이니 세인이 권문의 자손에게 좋은 점수를 주었고 오늘의 우리가 이를 누린다. 사실 이는 과거의 조상이 쌓아놓은 우리 권문의 불가양不可讓의 할증금, 시쳇말로 프레미엄premium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손꼽아 보라면 우선 번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사시四始다. 사시란 안동권씨의 자랑거리로 조선조에서 권씨가 시초한 네 가지 일을 말함이니 그 하나가 족보의 시이다. 동국에서 제일먼저 족보를 만든 일이다. 이는 안동권씨족보安東權氏族譜 천지인天地人 3권이다. 일명 성화보成化譜로 조선 9대 성종成宗 병신년丙申年, 1476년에 간행되었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별집에 의하면 조선조 1562(명종17년)의 문화류보文化柳譜가 최초라 하였으나 이는 틀린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전하지 않고 있고, 실재하는 것은 우리 성화보보다 86년이나 뒤에 나왔다.

족보는 이를 만드는 분들의 자손번창 염원이 그대로 담기는 표현이다. 자손관리의 일환으로 족보를 알게 하여 정체성을 확인케 하고 각자의 삶을 나보다는 집안과 사회에 공헌케 하고 내 몸을 한번더 추스르는 후손이 되기를 소망함인 것이다.

하나는 기로소耆老所 입사入社인데 이 기로소는 태조 3년에 설치하였고 시조후 15세 정간공靖簡公 희僖와 14세 문절공文節公 중화仲和가 첫머리에. 일이로 등록되었으며 이분들은 11촌 숙질사이였다. 문절공은 예천백醴泉伯으로 호는 동고東皐이며 1398년 영관상감사領館象監事로 수문전학사修文殿學士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지誌한 지금 1만원권의 뒷면에 혼천의渾天儀의 바탕그림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가 도圖되어 있는데 이를 제작하여 세계적천문도의 결정판을 이루게 하였다.

하나는 전문형典文衡인데 이는 대제학大提學을 이름이니 제일 먼저 선임된 이가 태사후 16세 문충공文忠公 양촌 근近이었음이다.

하나는 호당湖堂의 시이다. 호당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인데 재덕을 갖춘 유망한 젊은 문신을 뽑아 사가賜暇, 즉 유급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하던 곳이다. 태종 8년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거기에 수위로 추천된 이가 태사후 17세 일재공一齋公 채採였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아무데서나 스스로 권아무개입니다 하면 상대로부터 뜻하지 않은 프레미엄을 끽하는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겠는가. 이 네 가지의 자랑은 오늘날에도 우리 권문의 어른된 자의 몸가짐이 되어 마음속에 담아 어긋남이 없이 나아가고 물러남의 출처出處에 가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프레미엄의 빚을 자손에게 갚는 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권문의 모든 종중의 우두머리인 대종회를 이끌겠다고 나선 백발이 성성하거나 적어도 반백을 넘은 어른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고 여의치 않으면 용퇴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사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이삼십대 젊은 남녀판사 앞에 조아리고 앉아 판결을 구하고 있으니 이 무슨 인사인가. 권성자權姓者는 물론이려니와 이 소문에 그만 뜻있는 타성인들도 민망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 8월에 또 대종회장 대행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안동법원에 접수되었다니 '이'에는'이'라는 말같은 보복이 쳇바퀴를 돌면서 어쩌면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송사는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의 자랑 4시가 글자로만 남을 것이 두렵다.